

민병옥, Conflating Spaces

Byoung Ok MIN

1. 전시개요

제 목 : 민병옥, Conflating Spaces(융합하는 공간들)

Byoung Ok MIN

일 시 : 2011. 4. 20(수) - 5. 15(일), 25일간

(오프닝 2011. 4. 20 (수) 17:00)

장 소 : 학교재갤러리

출품작 : 26점

2. 전시내용

학교재에서는 뉴욕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원로작가 민병옥(71)의 개인전을 개최한다. 1997년 63갤러리 개인전 이후 14년 만에 고국에서 열리는 전시이다. 단순한 추상요소들의 존재감과 그 사이의 유기적 긴장감이 감상자의 감성을 자극하고, 작가와 관객이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작가는 근 50여 년간 끊임없이 작업하며 추상화의 화면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있다.

민병옥이 작품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각 요소들의 존재감과 그 사이의 긴장감이다. 특히 작가에게 이것은 각각의 존재가 공간을 넘어 동등한 무게로 표현되었을 때 나타나는 것으로, 그 존재감이란 크기나 거리에 관계없이 서로 간에 호응해야만 하는 하나의 자극이다. 그것이 화면에 생동감, 생명력을 제공해주고 작가가 바라보는 세상의 구조를 화면 안에 재현해 주는 것이다.

이번 전시에 출품된 26점의 작품들은 90년대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작업에서 추린 것으로, 일흔이 넘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연구하는 작가 민병옥의 열정을 엿볼 수 있는 창이 될 것이다.

3. 전시주제

추상화가 민병옥 14년만의 귀국전

50여 년에 이르는 오랜 작업 기간 동안 추상화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지고 세상과 소통하는 재미작가 민병옥(71)의 14년만의 귀국전이 학교재에서 열린다. 1990년대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작업의 변천과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이다. 작가가 추상화의 한 길을 고집하는 이유는 단순한 추상요소들 사이의 유기적 긴장감이 감상자의 감성을 자극하고, 그 경험을 통해 작가와 작품을 보는 관객이 서로 자유롭고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굳은 신념에 따른 것이다. 그에게 추상화란 인간의 감각을 예민하게 하는 것이고, 그 예민함은 사물에 대한 호기심과 이해심, 관대함을 자극하여, 고차원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여 삶을 좀 더 윤택하게 해 주는 힘이다.

창작의 무한한 가능성과 실험정신을 알게 해준 추상화

내성적이고 말이 없었던 어린 민병옥에게 그림은 제일 친한 친구이고,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었다. 그 곳에서 그는 누구보다 적극적일 수 있었고 자신의 마음을 모두 내보일 수 있었다. 서울대 미대에 들어가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하면서 접한 추상화는 그에게 새로운 세계였다. 학교에서 당시 화단의 주류였던 반추상작업을 주로 하던 작가에게 당시 김창열을 비롯한 60년대 한국 화단의 앵포르멜 경향과, 미국 뉴욕의 프랫(Pratt Institute)에 유학하여 접한 재스퍼 존스, 프랭크 스텔라 등의 작품은 그림을 그리는 작가의 실험정신과 창작의 무한한 가능성을 알게 해준 신선한 충격이었다. 끝없는 상상의 나래로 펼쳐친 자신의 언어를 가능하게 해준 추상화에 대해 작가는 변화무쌍한 개념으로서 무한한 신뢰를 주었다.

끝나지 않은 패러다임

그는 미술이 나아갈 길, 미술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수단으로 추상을 선택하였다. 오늘날 다양하고 복잡해진 미술계의 현실에서도 꾸준히 추상작업을 지속하는 이유는 추상에서 아직도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앞으로 일어날 미술계의 또 다른 개혁, 변화 역시 추상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번 전시에 출품한 26점의 작품들은 작가가 90년대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작업에서 추린 것으로, 일흔이 넘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연구하고 도전하는 작가 민병옥의 열정을 엿볼 수 있는 창이 될 것이다.

4. 작가소개

이화여중과 서울예고를 거쳐 1959년 서울대학교 서양화과에 입학한 민병옥은 1963년 전체 수석이라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대통령상 수상)하였다.

1964년 뉴욕의 Pratt Institute(프랫 인스티튜트) 대학원에 한국에서 유학 온 최초의 학생으로 입학, 석사 과정을 마쳤고 결혼과 동시에 뉴욕에 정착하였다.

2005년 OK Harris(오케이 헤리스)갤러리 개인전, 1997년 Sigma(시그마)갤러리 개인전 등 미국과 한국에서 수십 차례의 전시를 통해 평단과 관객에게 작품 세계를 인정받았고, 코네티컷의 Aldrich Museum of Contemporary Art(올드리치 미술관), The Chase Manhattan Bank(체이스맨해튼은행) 등 유수의 해외 공공기관과 기업컬렉션에서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환기미술관, 63빌딩 등의 국내 기관에서도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1976년 뉴욕주 CAPS상, 1996년 Pollock/Kransner Foundation Grant(폴록/크라스너 재단 회화 부문) 등을 받았다.



5. 작품소개

환영과 본질의 사이에서 만들어낸 긴장의 공간-민병욱 작품의 변천과정



Untitled Ap5
1995
125.7×150.5cm
Acrylic on pieced linen

민병욱은 작품에서 회화의 환영과 보이는 것의 본질, 이 두 가지를 모두 강조하는 작업을 주로 해 왔다. 초기 작업에서 화면에 작은 패턴을 일일이 그려 패턴과 패턴과의 연관성을 주목한 작가는 1980년대부터 캔버스에 나무를 잘라 붙이는 등의 작업을 통해 표면의 공간을 강조하기 위해 공간과 공간의 분할을 추구하였다.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단순한 공간의 분할을 넘어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작업을 시도한다. 잘라낸 캔버스의 사용이 그것이다. 이번 전시에 출품한 작품 <무제 Ap5>에 등장하는 각각의 요소들은 겹겹의 레이어 위에 순차적으로 놓여있다. 먼 공간에는 삼각형의 물체가 희미하게 놓여있고 맨 앞에는 검은 곡선이 원을 그리며 놓여있다. 그 사이에 백색의 직선이 거미줄처럼 이리저리 갈라져있다. 이들은 서로가 존재함으로써 자신의 위치를 설명한다. 그러나 이 공간의 원근은 화면에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 서로 뒤섞여 선후구분이 모호해지는 상태가 된다. 서로 성격이 다른 개체들이 서로 간의 유기적 관계와 상호작용을 통하여 좀 더 분명한 성격 - 존재감을 가지고, 작품 전체에 긴장감을 제공한다. 또한 그 존재감은 서로 유기적으로 얽혀 각자 존재하는 공간을 융합시킨다. 그렇게 탄생한 민병욱의 화면은 선후관계가 역전되고 어그러진, 모순되지만 또 조화로운 풍경이다.



Untitled Ag6
2006
68.6×71.1cm
Acrylic and laminated canvas on canvas

2000년대 들어와 민병욱의 작품은 더욱 복잡해지고 다채로워진다. 캔버스를 꿰매던 것에서 조각을 콜라주식으로 캔버스 위에 접거나 붙이기 시작하면서 직선의 사용이 빈번해졌고, 입체감을 부각시키기 위해 밝은 색을 배경으로 사용하여 좀 더 밝은 톤의 화면이 만들어졌다. 1980년대부터 꾸준히 실험했던 공간과 공간의 분할과 유기적인 연결, 각 개체의 상호작용으로 생성된 작품 전체의 생동감이 더욱 심화되었으며, 특히 공간과 공간을 연결하는 각각의 구성요소가 가지는 존재감과 그 사이의 긴장감이 더욱 분명해진 모습이다.



Untitled M11
2011
104.1×147.3cm
Acrylic on canvas

최근 민병욱은 70~80년대부터 꾸준히 작업하던 콜라주들을 배제하고 순수한 페인트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2011년작 <무제 M11>에서는 그동안 작가의 트레이드마크로 여겨졌던 캔버스조각은 찾아볼 수 없다. 화면 안을 부유하는 각각의 존재들은 좀 더 자유로워지고 부드러워졌으며 또 어떤 것은 거칠어진 모습이다. 이전보다 어두워지고, 표현적이며 거칠어진 그의 근작들에 대하여 작가는 회화적인 시도라고 말한다. 이것은 부조적인 수단이 없더라도 충분히 공간의 레이어를 쌓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고, 순수한 페인팅에 대한 그리움의 표현이다.

공간과 존재 사이의 생명력, 끊임없는 관심과 이해를 요구하는 민병욱의 추상화

그는 작품을 통하여 관람자에게 자신이 보고 있는 세계에 대한 연구를 전달하고자 한다. 민병욱이 보는 세계는 순리와 모순이 뒤섞인 혼돈의 공간으로 대상적이고 모순적이며, 모든 것이 다 같이 경쟁하는 공간으로, 그의 작품에서 중요한 것은 각 요소들의 존재감과 그 사이의 긴장감이다. 특히 민병욱에게 이것은 각각의 존재가 공간을 넘어 동등한 무게로 표현되었을 때 나타나는 것으로 그 존재감이란 크기나 거리에 관계없이 서로 간에 호응해야 발생하는 하나의 자극이다. 그것이 화면에 생동감, 생명력을 제공해주고 작가가 바라보는 세상의 구조를 화면 안에 재현해낸다.

작가가 세상을 재현하는 행위는 민병욱에게는 즐거움이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표현수단이다. 그러나 작가는 굳이 그것을 관람객이 이해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관객이 어떻게 읽든지 간에 그것은 관객의 선택이다. 오직 그는 끊임없는 관심과 이해를 요구한다. 관객이 작품 안에서 민병욱의 세계에 대한 시선을 오롯이 읽어냄으로서 작가와 관람자가 서로 만나고 소통하는 순간이야말로 서로 대화하는 순간의 깨달음이다.

6. 작가약력

민병옥 (閔丙玉)

- 1941 서울 출생, 현재 뉴욕에서 거주, 활동 중
- 1967 뉴욕 프랫 대학 미술 석사과정 졸업
- 1963 서울대학교 서양화과 졸업

주요 개인전

- 2011 학교재 갤러리, 서울
- 2005 오케이 해리스 갤러리, 소호, 뉴욕,
- 1997 시그마 갤러리, 소호, 뉴욕
- 1997 갤러리 63, 서울
- 1995 시그마 갤러리, 소호, 뉴욕
- 1990 그린빌 미술관, 그린빌, 노스캐롤라이나
- 1987 원 갤러리, 서울
- 1980 햄프쉬어 대학 갤러리, 애머허스트,
매사추세츠
- 1976 소호 시각예술가 센터, 뉴욕
- 1972 포담 대학, 링컨 센터, 뉴욕

수상

- 1996 폴록-크라스너 재단 회화 부문 수상
- 1976~77 뉴욕주 C.A.P.S 회화 부문 수상
- 1976 야도, 사라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 1965-66 프랫 대학 연구비 지원
- 1963 서울대학교 서양화과 졸업 대통령상 수상

소장처

- 알드리치 현대미술관, 릿지필드, 코네티컷
- 체스 맨하탄 컬렉션, 뉴욕
- 환기미술관, 서울
- 모빌 오일 본사, 페어팩스, 버지니아
- 푸르덴셜 보험, 뉴욕, 뉴저지
- 트레드웰 기업 컬렉션, 뉴욕
- 에퀴터블 보험, 보스턴, 매사추세츠
- 위드함, 하퍼 앤 스티어 광고, 뉴욕
- 아트 플레닝 컨설턴트, 뉴욕
- 그랜드 하얏트, 뉴욕
- 63 기업 컬렉션, 서울
- 필라델피아 섬유·과학 대학 미술관, 필라델피아,
- 펜실베이니아
- 세다-시나이 메디컬 센터 컬렉션,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주요 기획전

- 2011 호홉, 실비아 왈드 앤 김포 아트 갤러리, 뉴욕
- 2009 얼굴들과 사실들: 뉴욕의 한국현대미술, 갤러리
코리아, 뉴욕
- 2008 문미애를 추억하다, 초대전, 환기 미술관, 서울
- 2007 뉴욕의 한국현대미술가전, 서울 아트 센터, 서울
- 2007 단체초대전, 오케이 해리스 갤러리, 소호, 뉴욕
- 2006 김환기와 그 다음 세대들, 갤러리 현대, 서울
- 2005 아트빌, 2x13갤러리, 첼시, 뉴욕
- 2003 3인전-김포, 민병옥, 김웅, 갤러리 코리아, 뉴욕
- 2003 5월의 멤피스, 5인전, 조이스미스 갤러리, 멤피스,
테네시
- 2001 초대전, 새로운 미술 프로그램, 쿤즈타운,
펜실베이니아
- 2000 20-20: 한국현대미술가전, 유엔한국지사, 뉴욕
- 1999 제25회 기념전, 환기미술관, 서울
- 1993 국제적인 미술가전, 환기미술관, 서울
- 1986 초대전, 한국문화센터, 뉴욕
- 1984 국제적인 이득전, 미술가의 공간, 뉴욕
- 1982 한미 현대미술가전, 사라 로렌스 대학, 테리타운, 뉴욕,
- 1982 환기재단 소장품전, 한국문화센터, 뉴욕현대미술관
- 1978 소장품전, 알드리치 현대미술관, 릿지필드, 코네티컷
- 1977 독립미술가조직(O.I.A)전, 연방건물, 뉴욕
- 1975 초대전, 알레산드라 갤러리, 뉴욕
- 1975 개관전, 오기 갤러리, 브룩필드, 코네티컷
- 1975 알드리치 미술관 소장품전, 미도우브룩 아트 갤러리,
오클랜드 대학, 로체스터, 미시간
- 1975 메트로라인 75: 15인 뉴욕 미술가, 덴버 대학, 덴버
콜로라도
- 1975 알드리치 미술관, 현대 반영, 알드리치 현대미술관,
릿지필드, 코네티컷
- 1974 여성 미술가전, 다니엘 프레스맨 갤러리, 케이프 코드,
매사추세츠
- 1974 미술가가 고른 미술가전, 미술가 공간, 뉴욕
- 1970 단체전, 포담 대학, 링컨 센터, 뉴욕
- 1967 미국 그래픽 아티스트 연합(S.A.G.A), 뉴욕

7. 전시서문

a. 서문 2. - 도널드 고다드 <민병옥의 회화>

- 학교재 웹하드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병옥의 회화

도널드 고다드 Donald GODDARD

유아기부터 우리는 모두에게 혼하지만 각자에게는 특별하게 다가오는 구름이라든가 꼬리를 흔드는 고양이와 같은 인식 가능한 시각적 세계와, 특정한 형태 그리고 색에 대해 학습해왔다. 이따금 이러한 모든 것들이 알 수는 없지만 이상하고 의문스럽게, 하지만 필연적으로 딱 들어맞는 경우가 있다. 우리는 지적이고 실용적으로 그 연관성을 포용하는 동시에 그것에 질문을 던진다. 이 연관성이 심오한 단절을 수반 한다는 것이 민병옥의 예술 세계에서 중심이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또한 그 역도 진실이 될 수 있다. 민병옥은 그의 회화 안에서 전체를 향해 끊임없이 움직이는데 이때 그는 항상 좀 더 크고 점점 더 복잡해지는 합의 가능성의 표현을 아우르는 괴리와의 교섭에 기반을 둔다.

이 과정은 회화라는 매체 자체 안에서 그리고 그 주변에서 여러 단계로 진행된다. 그의 1990년대와 2000년대 초기의 직사각형의 캔버스를 절개하는 작업에서 그는 캔버스를 자르고, 잇고 서로 포갠다. 이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아크릴 물감을 활용하는 방법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드리핑하고 얹어주는 것에서부터 여러 가지 색으로 표면을 입히고 색이 서로 충돌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리고 그 형상은 항상 원, 타원, 구불구불한 선, 그리고 직사각형의 거친 캔버스에 반하여 메아리치는 입체적으로 보이는 다양한 종류의 상자를 묘사하는 색의 띠로 구성된다.

2004년까지 MA4와 같은 작품에서 캔버스 위에 자리하고 있는 직사각형은 충돌이 해결될 수 없는 곳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더 이상 주변의 가장자리를 들쭉날쭉 하게 하고 그 영역을 가로질러 거칠게 자르기 위해 그 영역의 경계를 벗어나는 절박감이 사라졌다. 가장자리에서 살짝 물러 들어와 있는 화면은 모든 것은 그려진 이미지 안에서만 성립된다는 것을 명시하는 완충제 역할을 한다. 작가가 말했듯이, 그는 캔버스가 또 다른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세상은 본질적으로 자신이물질성의 해결 대상이다.

2004년과 2007년도 회화작품에서와 같이 MA4 작품에서 캔버스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좁아지는 사각형의 중심을 지나 라미네이트 되어 종래에는 스스로에게 돌아가는 형태를 창조하는 또 다른 모양의 캔버스가 있는 경작지와 같다. 우선 작가는 이 캔버스 위부터 다양한 색의 물감을 계속해서 칠했다. 그 다양한 색 위에 노란빛을 띠는 흰색이 실타래처럼 아래로 떨어지면서 이때 생성된 틈을 통해 그 사이로 다른 색이 비친다. 상단 끝부분을 경계 지우는 주황과 노랑은 특별한 곳을 위한 원광의 효과를 낸다. 노란빛의 흰색 영역 위에 세 종류의 구성이 그려져 있다: 일곱 개의 꼬리를 가진 파란색 리본 띠, 노란색으로 윤곽을 나타낸 각이 있는 작은 상자, 그리고 화면의 오른쪽 하단 구석을 명시하는 녹색 윤곽의 큰 형태이다. 라미네이트된 캔버스를 포함하여 이러한 형태들은 비록 그 근원은 다를지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 접촉하고 공명하면서 유희하는 등장인물 같다. 이 아주 특별한 우주에서 관계성의 형성을 이해하는 데에는 반복적이고 자극적인 드라마가 있다.

이 드라마는 민병옥의 작업에서 2009년부터 심화되어 그 회화의 표면은 캔버스의 가장자리에서 좀 더 안쪽으로 끌려 들어와 더욱더 강력하게 우리의 관심을 회화 행위 자체에 집중하도록 한다. 2010년도 S10 작품은 대부분 어두운 청색과 흰색 붓놀림 위에 친숙한 구성이 그려진 너른 이수라장 이다: 붉은색의 커다란 원은 화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푸른빛의 구불구불한 선은 수평으로 지나가고, 노란색 윤곽을 띠는 상자 형태는 주로 왼쪽에 위치하고 있다. 모든 붓놀림은 이제 궁극적으로 모든 행위를 종합하지만 개별적으로 관여하는 사건이고 주요 요소이다. 그 구성은 맥락을 통제하기 위해 기하학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좀더 기이하고 모든 것을 아우르는 움직임을 위한 환경을 제공한다. 그것들은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그들은 상호 보완적이다. 만약 우주가 확장하고 있다면 아마도 이런 식으로 확장 하리라.

2011년 3월 뉴욕시

■ 도널드 고다드는 휴 라우터 레빈 어소시에이츠(Hugh Lauter Levin Associates)에서 출판한 『아메리칸 페인팅(American Painting)』의 저자다. 그는 1950년대부터 예술에 관한 글을 써왔고, 최근에는 newyorkartworld.com 등에 비평을 기고하고 있다.

b. 서문 2. - 릴리 웨이 <과거와 현재의 추상>

- 학교재 웹하드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추상

민병옥의 회화

릴리 웨이 Lilly Way

현재 뉴욕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병옥은 35년간의 작업 기간 동안 물질의 실제성과 페인팅의 환영성 결합을 추구해왔다. 이것은 지금은 흔하지 만 당시에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1970년대 예술 창작의 영역 내에서 발생한 급진적 실험 결과로 나타난, 매체와 회화 과정을 혼합하는 작업이다. 그 결과 나타난 작품은 2차원이기도 하고 3차원이기도 하며, 페인팅이기도 하고 드로잉이기도 하며, 콜라주된 부조이기도 하다. 199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의 작품 중에서 추러낸 미니 서베이 형식의 이 전시는, 이 시기 세 가지 페인팅 시리즈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의 초기 작품에 내재되어 있던 관심사는 여전히 현재의 작품 제작에서도 또 다른 형식으로 존재한다. 즉, 작가 민병옥의 근본적인 회화 언어는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재구성되고 강화되어 뚜렷이 다른 결과를 낳고 있으며, 시리즈마다 보여주는 변화는 매우 계시적이다.

전시된 초기 두 작품은 1994년과 1995년에 제작한 무제 작품으로 스케일이 크다. 몇개의 기하학적 형태의 린넨 조각들을 붙여 꼬매서 바 리프로 된 퍼즐처럼 표면을 분할하는데, 이것이 작품의 지지대 역할을 한다. 그의 팔레트는 분필의 흰색으로 얇게 씌운 듯한 옅은 색깔이고, 가장자리는 캔버스가 그대로 노출된 채 직물의 짜임을 드러내, 정제된 것과 날것을 병치시켜 작품 과정의 전후를 강조하여 보여준다. 그는 가장자리의 주변부를 비어 있게 하여 회화의 평면을 규정 짓고, 페인트나 캔버스 같은 재료들의 차이가 경계 지어지는 것을 선호한다. 1995년의 작품에서는 무한을 의미하는 8자 모양의 자홍색 고리가 화면 바로 밑에서 맴도는 반면, 다른 기하학적인 형태-예를 들면, 곡선의 호, 삼각형, 비교적 굵은 선의 형태-들은 좀더 안에서 반쯤은 지워져 있는 상태로 어른거리고 있고, 가장 윗면은 팽팽하게 그려진 밧줄 같은 선이 지배하고 있다. 민 병옥은 변하지 않는 작업 방식 중 하나인 겹겹이 쌓는 화면을, 쓰고 지우기를 반복할 때 생기는 팔림세스트(palimpsest)에 비교한다. 그것은 보다 크고 복잡한 공간과 깊은 의미의 감각을 창조하는 작업 과정의 기록이다.

2006년에서 2007년 사이에 제작한 작품 시리즈에서는 표면의 슬기 부분이 사라지고 포개진 캔버스 이플리케로 전환되었다. 커스터드 노란빛에 옅은 녹색을 띠는 결쪽한 크림 같은 층이 화면 전체를 덮고 있고, 물감이 묻지 않은 부분이나 캔버스 가장자리 주위에 강렬한 색들이 그 사이로 보인다. 이렇게 우연히 생기는 작은 빈 공간들은 또 하나의 회화적 용어로 그의 작품에 수용되어 작품에 포함되는 또 다른 패턴을 만들어내는데, 포개진 캔버스의 모양을 반복하는 기하학적 형태를 포함하여 전체적인 구성에 어떻게 기여하는가에 따라 어떤 부분은 덮이고 어떤 부분은 그대로 남아 있다. 우연은 민병옥 작업의 한 요소로 그의 미적 유산의 일부이며, 동서양 모두에 근원을 두고 즉흥적인 사변을 일으키며 예술적 통제를 행사한다. 이러한 대처 방식은 그의 작업 전반에 구조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드러나 있으며, 이것이 깊이감을 보여준다: 텍스처된 것에 반하는 평면, 좀 더 회화적인 것에 반한 기하학적인 형태, 구불구불한 곡선에 반하여 직선으로 된 형태, 흑백에 반하는 색, 긴축성과 충돌하는 감각성, 숨은 침묵과 겨루는 투명한 과정과 의미.

그의 신작은 또다시 재구성되고 재해석된 것이다. 콜라주 요소가 제거되어 다른 종류의 접근과 해결을 요구하는 재래식 그림들은 오히려 더 많은 제스처와 밀도 높은 구성으로 표면이 불안정하고 복잡하다. 민병옥은 이전 작업들을 구성했던 표면의 부속물들에 의해 제한받지 않았을 때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작업들의 바탕은 어두운 반면, 산만하고 거대한 우윳빛의 날아다니는 듯한 흰 사이로 비치는 검정색과 다른 색조들은 작품 밖 실제 공간으로 튀어나온다. 이 우윳빛의 붓 자국은, 마치 이전의 시리즈를 덮고 있는 결쪽한 녹색기의 연한 노란색을 흐리게 하고 증발시켜서 그 밑에 있는, 사로잡고 또한 사로잡히는 공간과 여러가지 환영들을 드러내려고 한 것 같다. 이것도 하나의 현실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우리가 지각하고 있는 대부분의 현실이 우리 자신의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며 또 미완성된 것이고 제한된 것이기 때문이다.

회화와 추상회화의 흥망성쇠에 대해서는 지난 반세기 동안 잘 기록되어왔지만, 이제는 그것을 자신들만의 자극적이고 독특한 방식으로 보여주는 젊은 화가들로 인해 필수적이며 혁신적인 표현이 가능한 방식이나 스타일로 안정되었다. 1970년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회화의 종말이 왔다고 생각했지만, 1950년대와 60년대, 그리고 1970년대 추상작가들의 작품 전시가 계속 부활해왔다. 예견된 죽음은 시기 상조였고, 모든 종류의 회화는 민병옥과 같은 예술가가 심오한 작업을 계속하고, 역으로부터 현재를 구성하고 미래를 준비하여 순간의 눈부심을 넘어 무한한 다양성을 탐험하는 한 우리 곁에 계속 남아 있을 것이다.

■ 릴리 웨이는 뉴욕에서 활동하는 독립 큐레이터, 수필가 그리고 비평가로 『아트 인 아메리카』에 글을 기고한다.